

'감미로운 목소리' 성시경, 연말 콘서트 전석 매진

1979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성시경은 삼수 끝에 목표를 돌려 고려대 사회학과에 진학했다. 졸업 후 고려대 언론대학원에서 방송학을 전공했다.

전공과 큰 관계가 없는 음악의 길로 들어선 이유가 있다. "고려대 사회학과에 입학했지만 미래가 불안했고 또래들에 비해 뒤쳐지는 기분이었"이라며 "물론 사회학도 멋있는 학문이지만 진로에 고민을 한 결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이 노래임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100kg에 육박한 몸무게와 보잘것없는 외모로 과연 가수가 될 수 있을지 스스로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감점으로 2000년 사이버 가요제 '뜨악 페스티벌'에 참가해 '내게 오는 길'로 대상을 받으며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형석을 만나 가수의 길로 들어섰다.



아크로리버파크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2

이듬해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곡 등의 데뷔 앨범 정규 1집 '처음처럼'을 발매하며 신인답지 않은 뛰어난 가창력으로 사랑받았다. 이를 통해 연말 시상식에서 신인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듬해 7월에는 첫 번째 전성기를 연 명반인 정규 2집 'Melodie D'Amour'를 발매했다. 윤종신이 총괄 프로듀싱을 맡은 이 앨범은 타이틀곡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와 '넌 감동이었어' '좋은 텐데' 등 여러 곡이 수록돼 폭넓은 인기를 누렸다.

이 무렵 신승훈, 이문세 등 유명 가수들과 가요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입지를 넓혔다. 감성을 건드리는 촉촉한 발라드를 불러 '성발라' (성시경과 발라드의 합성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3년 5월에는 스페셜 앨범 격인 'Try To Remember'를 발매했는데 수록된 '희재'가 2003년 개봉한 영화 '국화꽃 향기' OST로 쓰이면서 인기를 끌었다.

그해 10월 김형석이 작곡한 곡 '차마' '외워 두세요' 등이 수록된 3집 'Double Life: The Other Side'를 발매했으며 2004년에는 리메이크 앨범인 '푸른 밤의 꿈'으로 가요계에 리메이크 붐을 일으켰다.

2006년 10월 정규 5집인 'The Ballads'부터 직접 앨범 프로듀싱을 맡았다. 특히 타이틀곡 '거리에서'는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성시경의 가성과 기교가 매우 잘 어우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제대 후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OST인 '나는 나의 봄이다'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tvN 드라마 '왕이 된 남자' OST인 '니 곁이라면', tvN 드라마 '구미호뎐' OST인 '비스듬히 너에게' 등 다양한 OST 작업에 참여했다.

지난해 5월에는 약 10년 만의 정규 앨범 's(시웃)'을 발표했다. 이 앨범에는 사랑, 사랑, 삶, 시간, 상처, 선물, 손길, 시선 등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단어와 의미를 녹여 그의 감성을 엿볼 수 있다.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꾸준히 예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KBS2 '1박 2일 시즌2' 출연은 물론 JTBC '마녀사냥' '비정상회담', MBC '호구의 연애', KBS2 '배틀트립' 등에서 진행을 맡았다. 2018년 연말 KBS 연예대상에서 '배틀트립'으로 토크&쇼부문 우수상을 받았으며 현재는 KBS2 '배틀트립', JTBC '결혼에 진심' 등에 출연 중이다.

한편 '발라드의 황제' 성시경이 콘서트로



가수 성시경

에스케이 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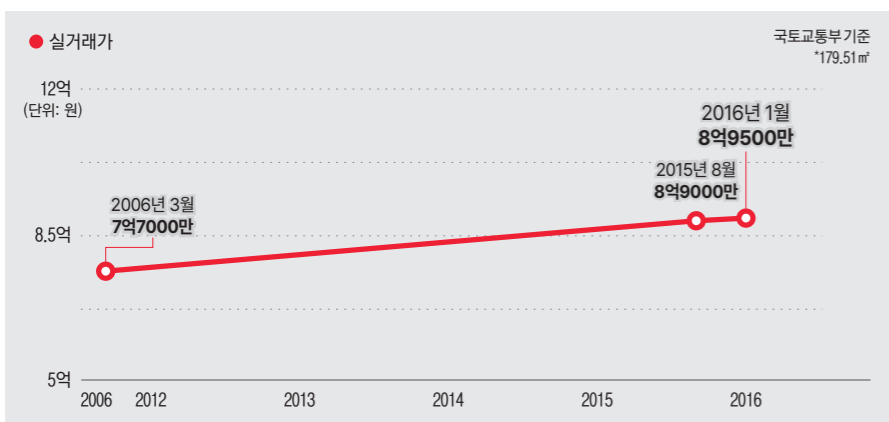
돌아온다.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2022 성시경 연말 콘서트'를 연다.

예매를 오픈하자마자 전석 매진 돌풍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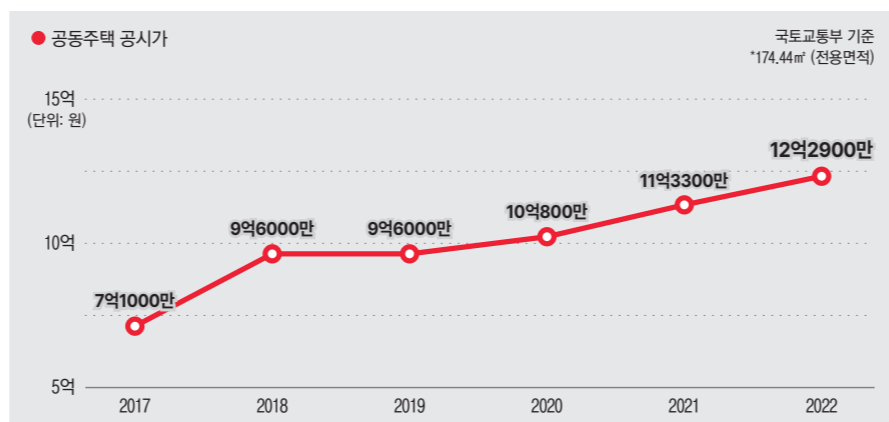
일으키며 인기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공연은 '2019 성시경 '노래' 앵콜 콘서트' 이후 약 3년 만에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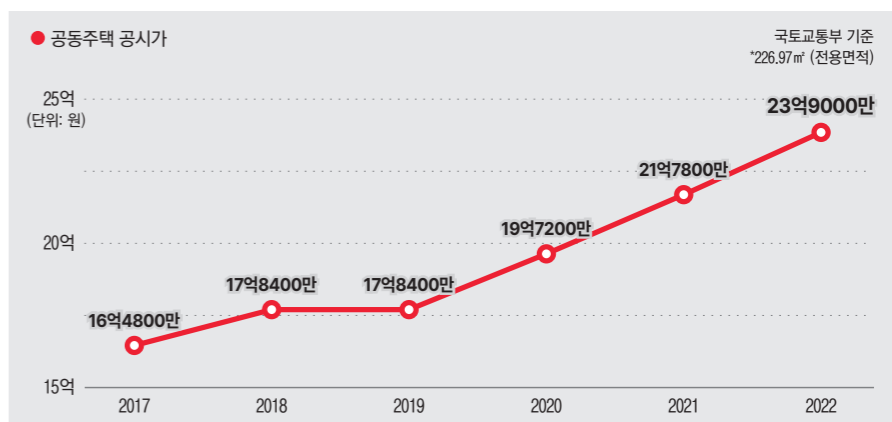
신성리더스카운티



월턴빌아파트



어퍼하우스3차



좌승희

전)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UCLA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제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위원,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전국시도연구협의회 회장,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미디어엔 회장 등을 지냈다.



안산중앙주공6단지 조감도, 한국토지신탁

서장은

전)엑스코 대표이사



서장은 전 엑스코 대표이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에서 석사, 중앙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클라우드나인 부사장, 클라우드나인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공보특보, 서울시장 대변인, 지방행정개혁특위 위원, 수도발전대책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중친선협회 부회장, 서울시 정부조정실장, 주 히로시마 총영사, 한국전산업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 히로시마 총영사로 재직하면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공연, 히로시마 기업들과 교류



국도부 등 지속 건의

권영식

현)넷마블네오 대표이사



권영식 넷마블네오 대표이사는 넷마블 대표집행위원을 겸임 중이다. 유종상사 영업부, 한국인터넷플라자협회, 아이링크 커뮤니티 마케팅부를 거쳐 CJ인터넷 퍼블리싱사업본부 본부장, 지아이게임즈 대표, CJ게임즈와 넷마블게임즈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한국인터넷플라자협회에서 일하다 PC방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을 만나 인연을 맺었다. 이후 아이링크커뮤니케이션에서 온라인 영화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다가 방 의장의 CJ인터넷(현 넷마블)에 합류해 퍼블리싱사업본부장을 맡았다. '마구마구' '서든어택' 등 흥행 게임을 발굴해



기업 성장에 일조했다. 2015년 턴온게임즈, 리본게임즈, 누리엔 등 세 곳 개발회사를 합병한 넷마블의 개발 자회사 넷마블네오 대표로 선임됐다. 인공지능(AI),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게임 등 신사업과 지식재산(IP) 가치를 강화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한국토지신탁,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 공동사업시행 맡아

경기도 안산시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이 경기 안산중앙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조합장립총회만 6회 진행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특히 2021년 4월에는 정비구역 일몰의 위기에 봉착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한국토지신탁은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선두 주자로서 쌓은 노하우와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이룬 시일 내에 충족하며 이번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한국토지신탁은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도



안산중앙주공6단지 조감도, 한국토지신탁

시정비사업에 뛰어들면서 신탁방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감자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에는 경기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서울 영등포1-11구역 재개발 사업대행자 선정 등 다수 수도권 정비구역 사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의 사업 참여로 안산중

양주공6단지 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들은 공정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토지 등 소유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3년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사업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 담당자는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은 않지만 한국토지신탁만의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토지 등 소유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은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676-2 일대 4만1191㎡ 부지에 공동주택 1013가구와 근린생활시설 약 136평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지는 수인분당선이 환승 가능한 수도권 전철 4호선 중앙역 인근에 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성포역(예정)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진입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양천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국토부 등 지속 건의

서울특별시

서울 양천구는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적정성 검토 개정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8월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모두 포함돼 목동·신월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이 쉽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조건부 재건축도 차차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해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기에 양천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과 관련, 당선 직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를 잇달아 방문하며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를 요청해왔다.



목동 아파트 드론 전경, 양천구

특히 구청장이 올해 9월 구청장 협의에 제출한 안전진단 제도개선 안전이 채택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명의로 국토부에 건의된 바 있다. 건의사항 2건 모두 이번 국토부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그대로 반영돼 앞으로 적정성 검토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고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단계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며 그동안 막혔던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 1월 개정규정이 시행되면 현재 적정성 검토 진행 중인 단지를 대상으로 조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해 재건축 또는 조건부 재건축 여부를 다시 판정하게 된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국토부가 제공할 예정인 표본수상 등의 확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입안권자인 구가 기본사항을 검토 후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